

Tremper Longman 박사, 신은 전사입니다, 세션 2, 전쟁 수행 방법: 전쟁 전, 도중, 전투 후

© 2024 Tremper Longman 및 Ted Hildebrandt

저는 Tremper Longman 박사이며, 하나님은 전사입니다에 대한 그의 가르침, 세션 2에서는 전투 전, 전투 중, 전투 후에 전쟁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했듯이 먼저 구약성서에서 전쟁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구약성서 출처. 먼저 신명기에는 신명기 7장과 20장에 전쟁 수행과 관련된 두 가지 법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행하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이스라엘 2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언약갱신서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로 헌신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저도 동의하는 신명기는 고대 근동 조약의 많은 구성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비유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는 주권을 가진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분의 속국이므로 언약 조약의 모든 부분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특히 신명기 같은 책에서는 율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법은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 판례법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처럼 다른 판례법에서도 실제로 십계명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판례법이나 성문법이라고 부르는 것과 신명기 7장과 20장의 내용은 전쟁 중에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적용한 것과 같은 특정한 사건, 상황에 적용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계명을 잘못 번역하여 근본적인 오류를 범했을 뿐인데, 실제로는 '살인해서는 안 된다'로 번역해야 합니다. 그것은 살인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가 아닙니다. 신명기 자체에서 살인이 합법적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전쟁법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어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마음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꺼내서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NIV를 읽는 것이 기쁘고 신명기 7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네가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많은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크고 강한 일곱 민족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붙이시매 네가 그들을 쳐서 진멸할 것이라 우리는 여기서 번역되고 있는 이 동사와 명사 하람(haram)에 대해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완전히 파괴해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십시오.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그들의 딸을 너희 아들로 삼지 말라 그들이 너희 자녀를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희를 속히 멸하실 것임이니라 .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일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그들의 성상을 깨뜨리며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들의 우상들을 불사르시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자기 백성, 곧 자기 소유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지키셨으므로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땅,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나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그들의 얼굴에 멸망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갚는 것을 더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멸망시켜야 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은 이 나라들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속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이집트에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하십시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데리고 나오실 때 큰 시련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말벌을 보내시어 너를
 피하여 숨는 자까지 멸망하게 하실 것이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이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민족들을 여러분 앞에서 차츰차츰 쫓아내실
 것입니다. 한꺼번에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생 동물이 주위에
 번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러분에게 넘겨
 주셔서 여러분이 멸망할 때까지 큰 혼란에 빠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왕들을 너희 손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아무도 당신을 대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
 곧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멸하실 것입니다.

너는 불에 태워질 것이다. 은과 금을 그 위에 덮지 말고 스스로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것에 올무에 걸리리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일임이니라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이 구별되어
 멸망할까 하노라

또 여기서 우리가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가증하고 가증한 것은 멸망하기 위하여 구별된 것임이니라. 그리고 신명기 20장에서는 “네가 적군과 싸우러 갈 때에 말과 병거와 너보다 큰 군대를 보거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싸움터로 나가려 할 때에는 제사장이 앞으로 나와서 군대에게 말하라.

그가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희가 대적과 싸우러 가노라 하시리라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가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장교는 군대에게 이르기를 새 집을 짓고 아직 거기에 거주하지 아니한 자가 있느냐? 그를 집에 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전투에서 죽고 다른 사람이 그 안에서 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즐기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집에 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투에서 죽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자와 맹세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집에 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전투에서 죽고 다른 누군가가 그녀와 결혼할 것입니다.

그러면 장교는 덧붙여 말하기를, 두려워하거나 겁먹은 사람이 있느냐? 그의 동료 병사들도 낙심하지 않도록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장교들은 군대에게 말하기를 마친 후에 군대 위에 지휘관들을 임명해야 한다. 당신이 도시를 공격하기 위해 행진할 때, 평화를 제안하는 사람들에게 가십시오.

만일 그들이 받아들이고 문을 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강제 노역을 하여 너희를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화친하기를 거부하고 너희와 싸우려거든 그 성을 에워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네 손에 붙이시거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칼로 쳐 죽이라.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들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는 너희가 차지할 수 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들에게서 너희에게 주시는 전리품을 너희가 사용할 수 있다. 너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가까운 민족에 속하지 아니한 모든 성읍을 너희는 이와 같이 대할지니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것을 하나도 살려 두지 말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에게 가르쳐 그들의 신들을 섬기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좃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게 하리라. 너희가 어떤 성을 에워싸고 오랫동안 그 성을 쳐서 빼앗으려고 싸울 때에 도끼로 그 나무를 꺾지 말라 이는 너희가 열매를 먹을 수 있음이니라

자르지 마십시오. 나무들은 사람이요, 포위해야 합니까? 그러나 너는 과실나무가 아닌 줄 아는 나무들을 베어서 너와 전쟁하는 성읍이 함락될 때까지 공성벽을 쌓는 데 쓸 수 있느니라. 좋아, 그건 몇 개의 긴 성경 구절이었고 다시 한 구절씩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실제 전투에 대한 역사적 보고와 함께 자료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 전투 전, 전투 중, 전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전쟁의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성격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투 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투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더 좋게 말하자면, 그들이 전투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어떤 식으로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느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리시는 두 가지 방법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요점은 인간 지도자들이 전투에 참여하기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지시와 행진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자, 여호수아 5장의 끝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리고 전투 직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사건을 다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3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손에 칼을

빠어 들고 자기 앞에 서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이르되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를 편이냐 이제 히브리어는 단순히 Lo라고 말합니다.

NIV는 둘 다 올바르게 번역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 전사 인물은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닙니다. 나는 군대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와 군대 대장으로서 이제 왔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외하며 여짜오되 나의 주께서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이까 여호와와 군대 대장이 이르되 네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불타는 떨기나무와 모세와 관련된 언어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자신이 전사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스라엘 편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리고 편이 아니시지만,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조슈아는 도시 주변을 많이 행진해야 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행진 명령을 받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투 전에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신 예입니다. 이제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가 사무엘상 23장에서 발견됩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미래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이 되지 못한 시대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통치하고 있고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그를 쫓고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와 함께 있고 내 생각에 약 600명의 상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내가 읽으려는 내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대제사장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킬라를 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시작됩니다. 킬라는 네게브 쪽의 작은 성읍이고 타작마당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여쭙어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의 첫 번째 충동은 전쟁에 나가거나, 나는 싸우러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여쭙는 것임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킬라를 구원하라 하시니라

그러나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 유다에서도 우리가 블레셋 군대를 치러 길라에 가면 얼마나 더 두렵나이까 하더라.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묻자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길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길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그들의 가축을 약탈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길라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길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좋습니다. NIV가 나타내는 것은 6절의 괄호 안에 있는 설명입니다. 원래 독자들은 그것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 정확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에는 여전히 몇 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만, 6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주님께 어떻게 구하였는가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묘사된 소위 우림과 둠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림과 둠뭉은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주신 장치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우림과 둠뭉, 즉 에봇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의 잡초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에봇 자체가 아마포 에봇과 다르며 우림 과 둠뭉이 보관되어 있는 곳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일부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대제사장이 주님께 질문하기 위해 사용했던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아마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간 추측하고 있지만 아마도

주사위였을 것입니다. 던지거나 던진 물건과 같으니, 그것이 긍정으로 나올 수 있고 대제사장이 질문을 하므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길라에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면 당신은 이 예언의 장치를 던지고 그들이 긍정, 부정 중 하나가 나오며 여기에 그것이 점술이 되지 못하게 하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생애 말년에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들이 계속 보낼 때 우림과 둠뭉을 계속 가지고 있고 계속 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인과 앗시리아인 및 다른 사람들이 점을 쳤다고 말하는 방식이 이스라엘에게 금지된 이유입니다. 우림과 둠뭉은 하나님의 자유를 보존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약간 제쳐두고 있지만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있는 이유는 다윗과 다른 이스라엘 전쟁 지도자들이 전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또 다른 방법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전투에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가정하면, 다음 단계는 영적인 준비입니다.

이것은 흥미롭고 우리가 말하는 전쟁 유형의 종교적 성격을 실제로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전투에 나가기를 원하시면 군대도 전투에 나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막과 성전과 성소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에 여러 시대, 많은 전투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는 실제로 언약궤가 군대와 함께 임재하신 것으로 상징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동식 상징인 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여러 장소를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건너간 후, 그리고 여리고 전투가 있기 전에, 할례를 받지 않은 채 광야에서 방황하던 백성들이 나중에 길갈이라고 불렀던 곳 근처에서 집단 할례를 받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이제 창세기 34장으로 돌아가서 야곱, 레위, 시므온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게 하려고 속인 후 성 전체를 학살했다는 내용을 읽고, 할례의 절차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당신의 군대가 할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실제 인간의 전투에 정통한 기술은 아니지만 그들은 전투에 참여하려면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도 받고, 전쟁 전에는 유월절도 기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는 또 다른 장소는 조금 더 미묘하지만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봅시다.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은 왕들이 전쟁에 나가는 봄에 시작됩니다. 다윗은 요압과 왕의 신하들과 이스라엘 온 군대를 보내니라. 내 말은, 여기서 암묵적인 비판이 들리나요? 봄에 왕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다윗은 요압을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밋세바를 만나 동침하고 그녀가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David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글썄, 그는 최전선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전투에 대한 보고를 받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주었고, 다윗은 그를 해고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아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밋세바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아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그녀와 잤다면 그것이 그의 은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신을 하면 그 아이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압과 언약궤가 길르앗 야베스 평지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읽고 그가 남자 중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남자들이 전장에 있는 동안 즐거움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레위기에서 남자가 정액을 흘리면 그는 일정 기간 동안 의식적으로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특히 우리아가 남자와 함께 언약궤에 대해 굳이 언급하는데, 그가 말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잠자리를 하고 나 자신을 일시적으로 영적으로 더럽힐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남자를 불결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질문은 나중에 다시 다룰 수도 있겠지만, 힌트를 드리자면 정액은 보호받는 생명을 주는 물질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행위를 그다지 폄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주는 가능성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무슨 이유에서든 전투태세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아내와 잠을 잘 수 없고, 정액이 방출되면 전쟁터에 나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큰 법을 여기고 있는 신성한 기름부음받은 왕인 다윗 왕 사이에 놀라운 대조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간음하지도 말고, 살인하지도 말고, 헛 사람 우리아와는 달리, 그렇죠? 나는 그가 이스라엘 태생의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지금까지 기다렸다.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 편에 와서 야훼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확증한 사람입니다. 모압 여인의 룯기에 나오는 룯처럼 그는 율법의 세부 사항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내와 함께 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짧은 기간 동안 의식적으로 부정해지고 전투에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쨌든 이것은 레위기의 정결법의 배경을 이해한다면 그 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정결법에 들어가기 전에 영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개념을 설명하는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전투. 이제 영적으로 준비되면 제사를 드리기 전의 기록도 있습니다.

군대는 전투에 임하기 전에 그들과 함께할 제사장들의 지휘 아래 제물을 바쳤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이 이야기에서 뭔가 잘못되었을 때의 예를 듣게 되지만,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새로 기름부음받은 왕인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인 사무엘은 제사를 드릴 시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 소식을 듣자 사무엘은 화를 냅니다. 당신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리고 사울은 말하기를, 당신들이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겁에 질려 떠나갔습니다. 내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신명기 20장을

기억하시나요? 사울은 그의 군대가 두려워서 떠날 때 걱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20장에는 군대 가운데로 가서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겁에. 그래서 사울은 주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의 부족과 전사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부족을 드러내는 근본적인 두려움과 걱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투 중에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또 다른 요점을 보여줍니다. 즉, 사울이 그의 군대가 탈영하는 것에 대해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이러한 구약의 전투에 대한 또 다른 요점을 보여줍니다. 군대의 수와 무기의 품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병력의 수와 무기의 품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용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이 조금이라도 중요하다면 압도적인 세력을 가지고 전투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예시하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울 예정인데 35,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서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다시피 군대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한 후에도 두려워하는 사람, 등등, 여전히 남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룻 강으로 데리고 내려가서 물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물을 컵으로 입에 대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배를 딛고 개처럼 물을 핥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 랩퍼가 300마리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9세기 논평과 20세기 논평을 읽으면 그들은 가는데, 예, 개 랩퍼들은 다가오는 화살이나 그런 것들을 피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개 랩퍼로서 더 나은 군인일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히브리어가 좀 어색해요. 그가 어떤 카테고리를 택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그냥 300으로 낮추는 것뿐입니다.

왜요?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당연하게도 압도적인 힘으로 전투에 나가서 이기면 우리는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당신이 작은 군대로 큰 군대를 상대로 싸워서 이기면, 당신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로 사무엘상 17장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이 이에 대한 예입니다. 개인전별 전투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용사가 있습니다.

히브리 이야기의 흥미로운 특징은 우리에게 친숙한 다른 유형의 문학, 예를 들어 19세기 영국 소설과 달리 사람들에게 대한 신체적 묘사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이야기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아름답거나 압살롬이 긴 머리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읽었을 때, 그들은 항상 이야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골리앗에 대해 얻는 묘사만큼 물리적인 묘사도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블레셋 진영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용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의 키는 여섯 규빗과 한 뼘이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놋 투구를 썼고, 무게가 5,000세겔 나가는 놋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다리에는 청동 경갑을 차고 있었고, 등에는 청동 단창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의 창자루는 베틀채 같았고 창끝의 무게는 600세겔이나 되었습니다.

그의 방패를 든 자가 그보다 앞서 가더라. 그래서 군대에 있지 않은 데이비드가 나타나 군대에서 싸우고 있는 형들에게 점심을 배달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군대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조롱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 작아서 사울의 갑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는 새총을 들고 전투에 참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한쪽 구석에는 완전 무장하고 경험이 풍부한 거대 전사 골리앗이 있습니다. 다른 구석에는 어린 데이비드가 있습니다.

예, 그는 일부 야생 동물로부터 양을 보호했지만 전투에 능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싸우기 직전에 그가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45-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대적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치러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리라. 바로 오늘 내가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새와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여기에 모인 자들이 다 알게 되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이나 창에 있음이 아니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이라 그가 너희를 다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이 몇 구절은 일종의 전쟁 신학의 전형입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간단히 생각해 보자. 우리는 이론적으로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흘러갔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에게 가서 골리앗과 맞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데이빗, 난 당신이 약 100야드 정도 뒤로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을 번개로 튀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신성한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매혹적인 상호 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데이빗, 그 사람과 맞서야 해.

당신은 물매돌을 던져야 하고, 그는 그를 쓰러뜨리고 머리를 잘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내시는 다양한 이야기에서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인간은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성서에서 내가 좋아하는 또 다른 분야인 지혜문학을 생각나게 합니다. 잠언을 읽어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것에 대해 생각하다. 삶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지혜는 노력이 필요하고, 생각이 필요하고, 관찰이 필요하며,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훨씬 더 심각한 주제로 빌립보서 2장을 생각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구약성서에서 전쟁의 종교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전투로의 행진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전투로의 행진.

그리고 저는 이 특별한 전투를 언급한 역대하 20장의 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록 제 두 번째 예는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 시대에 관한 것이지만요. 그러나 역대하 20장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유다를 침공하고 여호사밧이 군대를 모아 그들에 맞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드고아 광야로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내 말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분의 선지자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후 사람들을 임명하여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군대 대장이 찬송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이 노래하고 찬송하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치러 오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을 향하여 세일산에 복병을 두시매 그들이 패하였더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일어나 세일산 사람들을 쳐서 진멸하려 하였더니 그들은 세일 사람들을 도륙한 후에 서로 도와 서로 멸하였느니라. 유다 사람들이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이르러 그 많은 군대를 바라보니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뿐이더라.

아무도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유대인들이 싸울 필요가 없는 이 상황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전쟁터로 행진해야 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하는 예배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 자, 제가 제시하고 싶은 또 다른 예는 이것에 대해 잘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민수기를 주의 깊게 읽어 보면, 민수기는 일종의 오합지졸, 방향이 아닌 광야 방향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벤트 주변이 아니라 오히려 전투로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선, 민수기의 시작 부분인 민수기 1장에는 일반적으로 인구 조사라고 불리는 내용이 있지만 실제로는 군인 등록입니다. 그림에 따르면, 군대에 복무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각 지파별로 그 수를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이 하는 일은 일종의 군사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군대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 2장과 그 다음에는 진의 배치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천막을 세울 때, 거기에는 뚜렷한 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태버넌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레위인들이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는 여러 지파가 성막의 북동쪽, 남쪽, 서쪽에 자기들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학자들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전쟁 캠프, 고대 근동의 전쟁 캠프와 비교했습니다. 그곳의 장군은 중앙에 천막이 있고 성막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것은 그의 천막이고, 매우 정교한 천막이지만, 그는 왕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중앙에 있고, 왕의 호위병들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전개할 시간은 없지만, 제사장에 대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경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드리려고 나가서 레위인들을 처형하고, 모세의 명령을 듣고, 나가서 송아지 숭배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직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오늘 너희가 구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경호원으로서 성소를 지키는 레위인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군대가 성소를 에워싸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행진 자체에도 비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군대가 행군할 때 장군, 즉 왕이 군대의 선두에 섰고 나머지 군대가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진이 시작될 때 민수기 10장에서 모세가 말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35절, 민수기 10장 35절에서 방주가 떠날 때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주의 대적들을 흠으시옵소서. 당신의 적들이 당신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그러니 주님, 일어나십시오. 시편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시편과 전쟁의 관계에 대해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것은 신성한 전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적들을 흠어지게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행군은 민수기에서 전쟁터로의 행군으로 묘사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투가 끝난 후, 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전투이고 그들이 그것을 충실히 수행하면 그들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순서는 축하입니다. 하루의 첫 번째 순서는 축하이며, 축하 찬송의 예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과 같은 곳에서 음섭, 홍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이는 전쟁에서 바로의 병거 부대를 물리친 후, 다음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지극히 높으시고 말과 마부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고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과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호와는 용사시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춰서 야훼가 명시적으로 전사로 불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쉬 밀하마(Ish milhamah)는 전쟁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다음 섹션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전사처럼 행동하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분이 전사로 불리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로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바로의 가장 뛰어난 용사들을 홍해에 빠뜨리니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 같이 깊음에 가라앉았도다.

주님, 당신의 오른손은 권능이 크시고, 주님, 당신의 오른손은 원수를 쳐부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계속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나면 사사기 5장을 읽어야 합니다. 이 찬송은 드보라와 바락의 지도력 하에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승리를 축하하는 찬송이며 역사서에도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나에게 시편이 구약 시대의 전쟁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경력 초기에 이 질문을 조사하면서 했던 연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연구에서 시편 150편 중 49편이 고대 이스라엘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기독교 독자로서 우리가 이 사실을 때때로 놓치는 이유는 우리가 언어를 신속하게 영화화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신약성서의 영적 전쟁으로 들어갈 때 해야 할 적절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전쟁 언어는 이스라엘이 적들과 싸우는 전쟁과 연관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전투 전, 전투 중, 전투 후에 부른 시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투 전에 부르는 노래로는 시편 7편을 보겠습니다. 읽으면서 그것이 구약성서의 물리적 전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져내소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고 찢을 것이니 누구 하나 없이 날 구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이 일을 행하여 죄악이 내 손에 있고 만일 내가 내 동맹에게 악으로 갚았거나 까닭 없이 내 대적에게서 약탈하였다면 내 원수가 나를 뒤쫓아 따라잡게 하소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으시고 나를 흙 속에 잠들게 하소서. 일어나세요, 우리가 일어나거나 일어남에 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진노하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에 맞서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을 깨우소서, 정의를 선포하소서. 당신께서 높은 곳에서 그들 위에 좌정하시는 동안, 모인 민족들이 당신 주위로 모여들게 하십시오. 세상은 민족들을 심판하게 하시고 나의 의와 나의 완전함을 따라 주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소서 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악인의 포악을 그치고 의인을 평안하게 하소서. 당신은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요 날마다 진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만일 그가 뜻을 뉘우치지 아니하면 칼을 갈고 활을 당기고 당기리라. 그분은 치명적인 무기를 준비하셨고, 불화살을 준비하셨습니다.

악을 잉태한 자는 재난을 잉태하고 환멸을 낳느니라. 구멍을 파고 퍼내는 자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구렁이에 빠진다. 그들이 일으킨 재앙은 그들에게로 되돌아가고 그들의 강포는 그들의 머리에 임하느니라.

나는 여호와와 의로 인해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하리라. 따라서 시편 7편과 그와 유사한 시편들은 전투 전에 하나님께서 일어나 적들과 싸우실 것을 호소하는 노래였습니다.

시편 91편은 전투 중에 불렀던 시편의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을 애도라고 분류한다면 시편 91편은 확신의 시편으로 가장 잘 묘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투 중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표현하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신처에 사는 사람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의뢰하는 자라 하노라 그분께서 진실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난처를 얻으리라. 그분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방패와 성벽이 될 것입니다. 너는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 퍼지는 전염병과 한낮에 멸망시키는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천 명이 네 옆에서, 만 명이 네 오른쪽에서 앞드러지나 그것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느니라. 오직 너는 눈으로만 보고 악인이 받는 형벌을 보리로다. 네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네 거처로 삼으면 재앙이 네게 미치지 못하며 네 장막에 재앙이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너는 사자와 코브라를 밟을 것이다.

당신은 큰 사자와 뱀을 짓밟을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므로 내가 그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를 보호할 것이다.

그가 나를 부르실 것이고 나는 그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그와 함께 곤경에 처할 것이다. 내가 그를 구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편에는 승리를 축하하는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5장과 사사기 5장과 이 시편 사이의 차이점은 출애굽기 15장과 사사기 5장이 역사적으로 내장되어 있다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특정한 승리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역사적으로 비특이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들은 그 이후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과 맥락에 시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를 썼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밧세바와 관련된 죄에 관해 나단 선지자가 직면한 후 다윗이 쓴 시편 51편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간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청원하고 있을 뿐이며, 다윗처럼 죄를 짓지 않은 우리 중 다른 사람들도 이 시편을 우리 기도의 본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잠깐 살펴볼 시편 몇 편은 역사적으로 구체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을 읽으면서 전투에서 방주의 역할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시편 24편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땅과 거기에 있는 만물과 세계와 거기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 의 것임이로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바다 위에 두시고 물 위에 세우셨으니 여호와와 의 산에 오르고 그 성소에 서실 것임이로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우상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거짓 신으로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께 복을 받으리니 너희 믿음을 구하는 자의 세대와 같이 구원자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야곱의 하나님 .

그리고 시편의 나머지 부분에는 헨델의 메시아로 유명해진 이 흥미로운 의식이 앞뒤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고대 배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했듯이 여기에는 일종의 의식이 앞뒤로 있습니다. 서로에게 말하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제사장의 목소리이고 상황은 그들이 곧 성전에 다시 놓을 언약궤를 가지고 전투에서 돌아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장하려는 음성은 군대에 관한 것이며 방주가 이르되 머리를 들라 문들아 옛 문들을 들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리라 그러므로 머리를 들라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기술적인 것은 단지 영광의 왕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런 다음 성벽이나 성전에서 들려오는 두 번째 제사장의 음성은 이 영광의 왕이 누구인지 말하며 응답은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니라. 전투에서 그 위대함은 이 시나리오가 전투에서 돌아오고 있다는 표시 중 하나입니다. 너희 머리를 들어라 문들아 너희 옛 문들을 높이 들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리라. 주님은 이 영광의 왕이 누구인지 여기에서 전능하신 여호와를 번역했다고 말씀하셨으나 아마도 하늘의 만군의 여호와를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예이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 하나는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십시오. 그분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의 의를 열방에게 나타내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기억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느니라.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기독교 신학을 우리가 구원을 듣고 회심에 대해 생각하는 본문으로 바로 읽어들이지 않도록 약간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이것은 승리로 더 잘 번역됩니다. 이것이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며 우리는 출애굽기와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의 언어가 하나님의 전쟁 활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이 새 노래라는 문구가 시편, 이사야, 요한계시록에서 수십 번 사용된 것을 보면, 이 문구는 항상 하나님의 전쟁 활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은 이전에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 신곡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싸움을 통해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방법을 축하하는 승리의 노래에 가깝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연은 과거에 승리를 거두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 승리를 거두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과 비파와 나팔소리와 양각나팔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러므로 두 번째 스탠자에서는 찬양의 범위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목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거민은 현재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와 거기에 있는 만물과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이 소리칠지어다 강들이 손뼉을 칠 것이요 산들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로다. 그분은 공의로, 백성에게, 공평하게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스탠자에서는 시적 의인화를 통해 찬양의 범위가 지구의 모든 주민을 넘어 확장됩니다. 이제 강과 산도 함께 찬양하며 장차 심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연이 있습니다. 승리자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스탠자가 하나님의 전사 활동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뿐만 아니라 더 넓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하나님의 왕권은 그의 전쟁 활동에 의해 확립되고 심판관으로 오시는 하나님은 전쟁 활동입니다. 그 자체.

내가 믿는 피조물 전체가 미래에 심판관으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찬양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모든 피조물이 좌절하여

신음하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좋아요, 다섯 단계에 걸쳐 성경신학적 주제에 대한 탐구를 설정하는 전투 종과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기 전 마지막 요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명기 20장에서 본 바로 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부가 아닌 땅에 있는 민족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그들을 완전히 파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때로 우리가 보는 일이며, 이는 당신이 약탈물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막이나 성전과 제사장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시민들을 처형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는 요즘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그것의 윤리적인 측면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그것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전투가 끝난 후 그들이 모든 약탈물을 뒤집어 씌우고 그 도시의 시민들도 처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투 전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육체적인 혈육의 적들과 싸우시는 구약성서의 이야기 중 첫 번째 단계로 주의를 돌릴 것입니다.

저는 Tremper Longman 박사이며, 하나님은 전사입니다에 대한 그의 가르침, 세션 2에서는 전투 전, 전투 중, 전투 후에 전쟁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설명합니다.